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17~2015.8.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활요본	혜당조심/원택 장경각		6	무아유희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2	신심명(물목개달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7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취조계종출판사)		8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4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9	감산자전	김선덕/대성 탐구사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원선생/김현호 효림		10	남을위해기도합니다	퇴옹성철	장경각



언해불전 펴낸 이유는 특권층 허물려는 의도일까?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정도전의 <불씨잡변>을 비롯해 조선의 선비들은 불교를 허무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교는 선비들이 믿는 하늘이나 운명, 변하지 않는 성품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중생의 의식이 지어낸 망상이라 허망하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런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했다.

사대부 양반들의 숙원인 억불 정책을 통해 조선에서 불교 입지를 좁힌 유학군주 세종대왕. 그런 그가 불교 책을 읽고 펴낸 것은 당시로서 가히 혁명이었다. 신하들의 강력한 거둬들이는 반대에 세종은 연로를 차단한다. “현명한 신하의 말이 무지한 임금에게 먹힐 리도 없고, 무지한 임금의 말이 현명한 신하의 귀에 찰 리도 없다. (중략) 귀찮게 자꾸 청하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세종 임금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불교가 무엇이기에 세종은 신하들의 입까지 막았을까?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장(사진)이 불교를 억압한 조선 왕조가 불경을 간행한 배경을 분석한 <왜 세종은 불교 책을 읽었을까>를 최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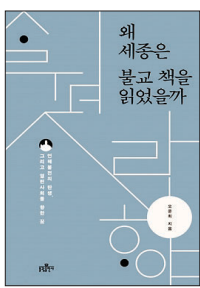
세종뿐 아니라 1461년 즉위 7년째를 맞은 조선 세조는 불경을 간행하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세웠다. 이는 한문본뿐만 아니라 우리말 풀이를 한 언해본(諺解本)까지 간행했다.

저자는 “세조가 간경도감을 세워 여러 경전을 보급한 것은 세종의 유훈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상소만 올리는 사대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해불전은 이념투쟁, 계급투쟁의 도구

왜 세종은 한글로 불교 책을 펴냈을까? 이 화두에 저자의 번득이는 상상력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저자는 “한글로 불교 책을 펴낸 까닭이 여러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살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또 알게 된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지배층에게만 허용되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지식과 권력과 금력을 백성과 지배층이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종의 훈민정음과 언해불전은 지배층의 특권을 허물려는 이념투쟁, 계급투쟁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능엄경언해>를 비롯한 언해불전 다수의 핵심 내용은 “누구나 보아 살피 사랑하면, 즉 관찰하고 사유하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하늘이 신분을 결정한다는 당시 유교사회 원리에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세조 때 문신인 김수온의 <사리영웅기>를 보면 “261명 사람들이 귀천 없이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부처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를 향해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구절 가운



왜 세종은 불교 책을 읽었을까
불광 펴냄
오윤희 지음
2만원

“언해불전 보지 않은 채 세종 평가 말라”

“함께 읽고 논란 하자”는 의미도 포함된 듯

저자의 주석 중심 독특한 편집도 ‘눈길’

데 “성상”, 즉 세종의 덕을 입어 그 모임에 모두 참석했다는 구절이 있다. 조선의 계급이,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은 잠시라도 무너졌었다.”라고 설명한다.

선사들의 말투… ‘입말의 활어’

이왕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일, 쉬우면 쉬울수록 좋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책에서 밝힌다. 언해불전 사업에 조선의 선사(禪師)들이 참여한 것은, 이 점에서 탁월한 결정이었다. 선사들의 말은 시장통과 여집집서 쓰던 ‘입말’이었기 때문이다.

선사들의 말은 ‘입말의 활어’다. 그들의 말투에서는 어려운 개념어와 추상어 대신 쉽고 생생한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서술어와 수식어가 판적이다. 그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 지식인들의 말과 글에 맞서기도 했다. 동네 사투리, 속담과 속어를 써서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통할 수 있는 말의 전통을 세웠다. 문자는 몰라도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우리 입말 전통이었다.

준동합령(蠢動含靈)은 (못 생명의) 꿈틀대는 모습을 그린 ‘구름구름하다’로 되살리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개념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그 중에서도 동사

를 잘 활용해 번역한 것이 놀라웠으며 언해불전 속에 담긴 선조들의 우리말을 다루는 기술에는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과 모델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예를 들면, ‘준동합령(蠢動含靈)은 (못 생명의) 꿈틀대는 모습을 그린 ‘구름구름하다’로, ‘성성(惺惺)은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지혜가 분명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되살아났다. 어려운 한자어나 개념어보다는 이쪽이 이해하기 쉬운 터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의 주 공격 대상은 유학자들이라며 우리말 불경 주석을 보면 유학자들에게 대한 불평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해불전은 종교책이 되기보다는 사상서다. 조선의 지적, 사상적 지형도의 단서가 여기 들어있다. 세종이 갖던 지적 성향과 군주로서의 정치적 성향이 담긴 언해불전을 보지 않은 채 세종대왕을 평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문본전 전산화 작업을 해 온 저자가 언해불전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둔 것은 주석 중심의 독특한 편집형식과 우리말 번역이다.

또 하나의 의도… 열린 지식 전통 되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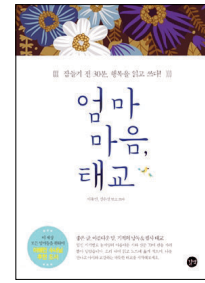
일본 승려 엔닌(圓仁, 794~864)은 <입당구법순례행기>서, 당나라에 머물던 신라 사람들이 승속, 남녀, 노소, 존비의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여 <법화경>을 신라 말로 함께 읽고 토론하던 장면을 묘사한다.

“남녀 승속이 함께 절 안에 모여 낮에는 강연을 듣고, 저녁에는 예참(禮贊), 청경(聽經)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승속의 숫자는 사십여 명이다. 그 강경과 예참은 모두 신라의 풍속을 따르지만, 저녁과 새벽의 예참은 당나라의 풍속을 따른다. 나머지는 모두 신라 말로 한다. 집회에 참석한 승속, 노소, 존비(尊卑)는 모두 신라 사람들이고, 단지 세 명의 중과 행자 하나가 일본 사람이다.”

신라 때도 있었던, 함께 읽고 토론하던 전통. 권근이 묘사한 목은 이색의 학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매일 강의가 끝나면, 의심스러운 뜻을 두고 서로 논란하여 각각 끝까지 의심을 풀었다.” 하지만 조선 초의 억불과 세종의 불사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이러한 열린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불교가 고려를 망쳤으니 조선에서는 아니 되웁니다.’ 성리학 선비들은 이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들의 논리에는 자기 생각이랄 게 없다. 자신들이 떠받드는 성현 주자의 말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외울 뿐이었다. 세종은 이런 데 질렸고, 그래서 입을 닫았다.

어쩌면 세종이 언해불전을 펴낸 이유 가운데는, ‘함께 읽고 논란하는’ 열린 지식 전통을 되살리려는 뜻도 들어 있었는지 모른다. 혁명의 일반적인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진 이 문화가 되살아나야만, 거친 앞으로 인한 폐해와 성리학자들의 독주를 막고 조선을 제한적이나마 열린사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태교는 엄마의 기쁨 나누는 것”



엄마 마음, 태교

이유민, 강은정 엮고 쓰다
길벗 펴냄
1만 5천원

이 책은 넘쳐나는 태교 방법에 의구심을 갖게 된 전업맘들, 태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직장맘들의 고민을 담아 완성했다. 아이를 품은 열 달 동안 겪은 변화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이다. 엮은 이가 옛글을 읽으며 얻은 깨우침은 부모의 자리를 고민하는 예비 엄마들에게 진솔한 고백이자 새로운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엮은이의 고민에 해당처럼 다가온 울림 좋은 시와 산문은 엄마의 감수성을 깨우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부모로 살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아이의 행복을 축복하는 자아성찰형 태교 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총 임신 시기별로 총 4개의 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1장은 ‘1~3개월: 환희와 감사’, 2장은 ‘4~5개월: 정성과 기다림’은 3장 ‘3달 6~7개월: 응원과 격려’, 4장은 ‘8~10개월: 희망과 용기’를 주제로 동서양의 아름다운 시와 산문을 실어, 엄마와 배 속 아이를 즐겁고 행복한 태교 시간으로 인도한다. 특히 각 장을 시작하는 <마음을 여는 글>은 엮은이가 배 속 아기와 함께하는 열 달 동안 겪던 감정 변화들과 고민들을 지혜의 옛글을 통해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엮은이의 글을 통해 예비 엄마인 독자들 역시 나라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문장, 뜻 좋은 글로 엄마 마음 어루만지기

태교란 ‘엄마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먼저라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우리 가정의 방향을 계획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책은 엮은이가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임신과 출산 시기, 엄마의 일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임신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나눴던 글들을 모았다. 아름다운 묘사가, 리듬감 넘치는 운율이, 송고한 뜻이 맘에 들어 여기저기 적어놓고 읊조렸던 글들을 실제 임신부들로 이루어진 베타테스터들의 의견을 취합해 객관화되고 정돈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전과 시, 산문,

동요 등 매일 마음을 울리는 좋은 글들 소리 내 정성껏 읽으면서 엄마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지는 행복한 태교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태교가 ‘태어날 아이의 삶’이 아닌 ‘엄마가 될 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낭독과 필사 태교로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교감하기
낭독은 바른 엄마아빠가 짧은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하기 좋은 태교 방법이라고 저자는 소개한다. 소리는 몸에서 울림을 만들어 집중도를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하나 소리 내는 과정은 글 읽는 행위에 진심과 정성이 담긴다. 낭독을 통해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교감하며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을 수 있다. 낭독과 더불어

엄마 ‘마음다스리기’ 가장 중요

임신중 아이와 나는 글들 모아

전업맘, 직장맘들 고민 담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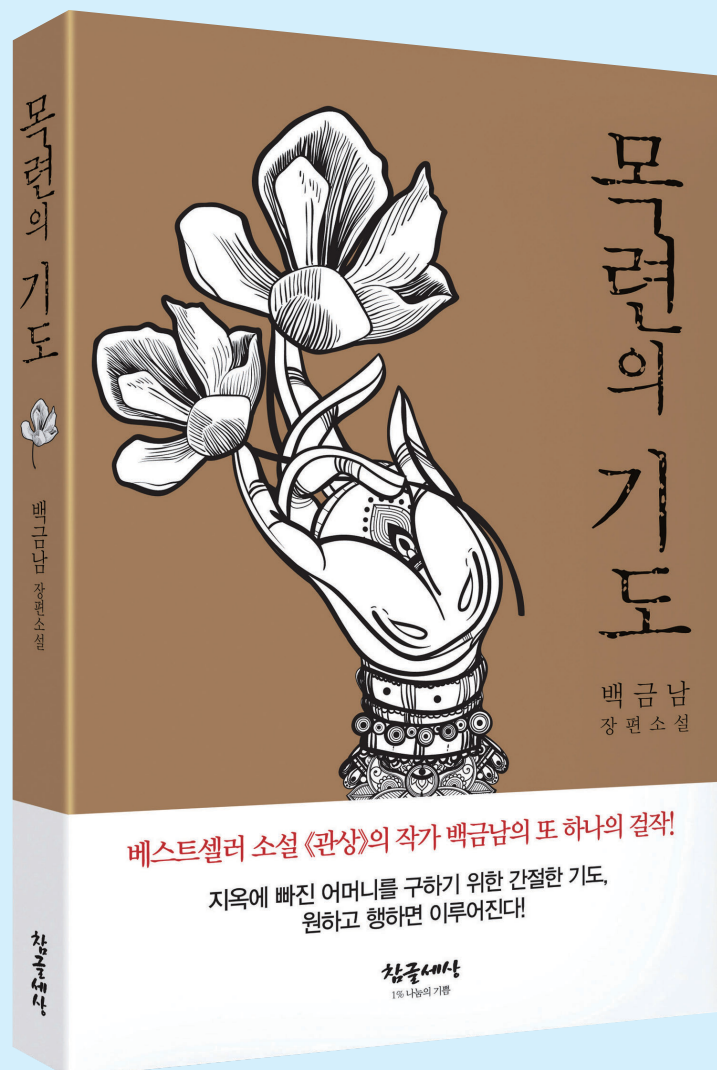
어 베껴쓰기(필사)를 하며, 손과 입은 특히 뇌를 자극하는 신체 부위라 입속 말로 읊얼거리며 필사 하면 더욱 깊은 뜻을 깨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낭독 하고 나서 되새기고 싶은 글이나 베껴고 싶은 글을 적어두었다가 아빠, 아이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낭독과 필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부모 되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울긋나아 야기도 배 속에서 자유로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

엄마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가장 훌륭한 태교

이 책은 수많은 태교법과 책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직장인으로 태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엄마들, 의욕적인 태교를 하고 있으나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억지 태교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고민을 담아 완성했다.

김주일 기자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넣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i003@hanmail.net

참글서상
1% 나눔의 기쁨